

개각 카드로 분위기 바꾸고 북·미 중재역할 재시동

분주한 봄 맞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때 보다 분주한 봄을 맞을 전망이다.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3·1절 100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신한반도 체제 구성'이 다소 힘이 빠지는 등 전반적인 정국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주말인 2일과 휴일인 3일은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서 정국 타개책을 구상하는데 몰두했다. 일단 문 대통령은 개각 카드를 꺼내들어서 수순한 분위기를 다잡을 전망이다. 4일 주요국 대사 교제에 이어 7일을 전후해 중폭 이상의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평화 체제'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개각은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 카드로 분위기를 바꾼 뒤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경제·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양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당초 구상한 '북미협상 성공→한반도 평화 체제 진전' 선순환 구조에 일단 제동이 걸렸으나, 청와대는 오히려 문 대통령의 '중재역'이 더 절실해졌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대신 청와대는 담판 결렬을 둘러싼 북미 양측의 주장에 차이가 있는 데다, 아직은 회담 전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우선 '진의 파악'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안건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이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나흘 만에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 북미 중재역 모색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NSC 개최와 관련, "현 단계는 하노이 회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하노이 회담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디서 매듭이 꼬였는지 등 하노이

"북미 양국대화 완전한 타결 성사"

남북 정상회담·대북특사 등 고민
경사노위 등 경제·민생 행보 박차

회담 상황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등에서 전격적인 '원 포인트 회담'을 하거나,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을 앞세운 '부분 제재 완화'를 연결고리로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제·민생 행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핵심 과제기 때문이다. 당장, 문 대통령은 오는 7일로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노동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협상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민생·경제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라는 도전을 시작했다"며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며 신(新)한반도체제로 답답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라며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 타결과 국제사회 지지를 토대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금남로에 울려 퍼진 만세삼창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난 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 3·1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 시민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이번주 중 중폭 개각...진영·박영선·우상호 입각설

문재인 대통령은 의원 출신으로 입각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 중에 개각을 단행한다.

김부겸 행정안전·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홍종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5명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6·7명 안팎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단, 개각 대상에는 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1기에 입각한 장관 4명이 유력하다. 김부겸 행정안전·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들은 모두 1년 7개월 이상 임기를 보낸 데다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서 물러난다. 또,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교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1기 내각 인사들이 당으로 복귀하면서 그 빈자리를

는 당 출신 현역 의원들로 채워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4선인 진영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3선의 우상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4선의 박영선 의원이 각각 거론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략적인 발표 일정은 정해졌다"며 "오는 7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거론되는 대상자 중 후임 인사 검증이 미비할 경우 4월 재보선 이후 시점으로 올해 2차 개각이 진행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중폭 규모의 개각에 앞서 4일 대사 인사도 진행된다. 우선, 남남포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신임 주(駐)일본 대사로, 주중 대사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주오스트리아 대사에는 이상철 전 안보실 1차장이 하마평에 오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용섭 시장 "광주에 독립의병 기념관 건립"

5·18광장서 100주년 3·1절 기념식

전남지역 곳곳서도 다양한 기념행사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1일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3·1운동의 의미와 숭고한 뜻을 기리는 각종 행사가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에 독립의병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3일 광주시는 "지난 1일 5·18민주광장에서 이용섭 시장,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및 광복회원, 각급 기관과 단체장,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시민, 정의로운 광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는 조속히 친일잔재를 청산해 의향 광주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며 "광주에 독립의병기념관을 건립해 선영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각종 퍼포먼스와 재현행사, 시민 100인 대합창, 뮤지컬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105개 시민단체에서 준비한 3·1운동 재현행사의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시민 2000여 명이 광주일고·금남공원 재현행렬에 동참해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 박수창 씨 등 독립유공자 6명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민족정기 선양에 앞

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고병돈(74) 씨 등 5명이 나라사랑 유공자로 광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전남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전남도는 지난 1일 오전 도청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기념행사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애국지사 유족, 광복회원, 기관·단체장, 군경, 공무원, 학생, 도민 등 각계각층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현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뜻을 이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민족 자주 3·1 정신을 이어 선조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대가 되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여수에서는 '호남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유형숙 선생의 묘소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이순신광장에서 희생 영령을 달래는 진혼곡 등 시민문화제가 펼쳐졌다. 목포에서도 유관순 열사와 김구 선생의 모습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전남도청 앞 광장과 남악 시내 등에서 시민과 함께 독립 만세 운동을 재현했다.

순천에서는 '조선독립선언서'가 남원에서 구례를 거쳐 순천에 도착하는 과정을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태극기를 두른 순천시자전거연맹 회원 200여명은 시가지 곳곳을 돌며 만세운동 분위기를 띄웠다. 이밖에 곡성, 해남, 장성, 화순 등에서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감사했던 50년을 넘어 보답하고 싶은 50년을 향해

지난 50년,
함께 해주신 고객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